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의원시 무임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7월 5일 화요일 (음 6월 2일)

제159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주시의회 의장 선거 2파전

〈후반기〉

더민주 김남규·김명지 의원으로 압축
김윤철·송상준 의원 부의장 후보 등록
초선 13명 표심 당락 최대 변수 등장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규(5선) 의원, 김명지(4선) 의원과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김윤철(2선)의원, 송상준(3선)의원 등 2명이 부의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통해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열리고 오는 8일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일 더민주 소속 22명 의원 19명이 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김명지 의원, 부의장에 송상준 의원을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김명지 의원은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내걸고 억지로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서명부를 작성하다가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말썽을 자초했다.

김 의원은 더민주 의장 후보 결정 투표에 앞서 당내 의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려 민주적 경선을 무산시키고 자신이 단일 후보가 되려는 야욕을 보여 초선의원들의 반발을 샀던 것.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는 초선의원들 앞에서 김 의원이 직접 몇몇 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연판장을 찢는 촌극도 벌어졌다.

한편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양당 구

도로 갈라진 가운데 치러지는 첫 선거로 양당 협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운데 초선 의원들의 표심 향배도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는 34명의 의원 중 더민주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민의당 9명, 무소속 2명, 새누리당 1명 순이다.

여기에 초선 의원도 13명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갈라진 상황에서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반기 부의장을 지내고 일직감치 선거전에 뛰어든 김명지 의원은 부의장 송상준 의원, 도시건설상임위원장 이병하 의원, 운영위원장 강동화 의원, 문화체육상임위원장 이기동 의원 등과 합세해 조직적 위세를 과시해 왔다.

통상 의정단은 완산구와 덕진구 출신으로 균형을 이뤄왔지만, 이번 의정단 선거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무너져 덕진구 의원들의 표심도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더민주 소속 모 의원은 "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모습에 실망이 크다"며 "후반기 의정단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의문이 많다"고 열려했다. /김영재 기자



본회의가 열린 국회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있다.

“누리에산 추경 포함 어렵다”

국회 대정부질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공공일자리 창출에 할애해야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내리는 추세다” 인상 반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관련해, “이번 추경의 요건이 구조조정과 관련됐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여기에 넣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누리과정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도에 교육재정 교부금의 확대에 의해 충당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합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도 적어도 올해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나왔다”며 “또 추경을 세입경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 교부금이 그만큼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지방교육재정에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이번 추경에서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번 추경에서 얼마나 반영할지, 추경 요건에 과연 맞는지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또 법인세와 관련 “요새 법인세는 국제적 조세 경쟁이 심한 세국이다. 다른 나라가 낮추고 있는데 우리가 높이는 건 우리로 투자를 다른 나라로 갈 것임을 내포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거듭 반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연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문제를 투자 문제와 연결시키는 건 너무 방어진 태도”라고 비판하자,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더더욱 투자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이 의원이 “실효세의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이 받는다”고 비판

한데 대해서도, “절대 금액은 당연히 대기업이 많다. 세금도 많이 내니 감액 금액도 많다. 대기업 위주의 감면 제도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고쳐가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또 “전반적인 세계경제가 좋지 않아 큰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인 세율은 정해져있는데 세제 지원 제도들이 다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한국경제에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IMF 보고서에 대해, “장기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이 보고서를 보고 당장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정부로서도 소득 불평등이 장기 지속되면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소득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안진수 기자

전북지역 곳곳 장마비

내일까지 계속될 듯

전주시상지청은 4일 오후 5시 45분을 기해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 부안, 임실, 무주, 진안 등 8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전주시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군산 118.3mm, 진안 113mm, 순창 80mm, 임실 70.5mm, 장수 66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이날 정오경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전북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으나 오후 들어 서해상에 위치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재차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동안 70mm,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비는 6일까지 50~80mm가량 더 내리다가 차차 그칠 전망이다. /박용주 기자

“서남대 정상화가 절실하다”

남원시의회, 교육부 앞 시위

남원시의회(총무위원장 이정린)에서는 최근 교육부 앞에서 “구 재단측 서남대 정상화 계획 반려와 조속한 서남대 정상화 촉구”를 요구하는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교육부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한 것.

남원시의회에서 시위를 돌입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재정기여자를 선정하여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이행해오고 있는 서남대를 지난 6월 7일 서남대 의대를

관하고 있어 남원시의회에서는 2016년 6월 8일 교육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바 있으며, 서남대 정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하고 있다.

2016년 6월 3일 비리재단인 구재단의 접수)를 검토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서남대를 사실상 폐교시키려 하고 있으며, 횡령과 비리 등으로 대학경영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다시 대학의 운명을 결정짓겠다는 모순으로 일

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상재대와 성신여대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남원시의회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고 교육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원시민의 희망사항과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위에 돌입하게 된 것.

이번 서남대 정상화 촉구 시위에 앞서 정식절차에 의해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였으며, 면담을 통해 서남대 정상화를 보장 받을 때까지 이번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소통의정 열린의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극현

정읍시의회

www.jcc.or.kr